

대한민국 귀금속·보석명장 가치 조명

익산보석박물관·황금보석박물관 석담 교류전 개최... 17명 작품 47점 '국내 최초 한자리에'

대한민국 귀금속·보석명장 작품들이 국내 최초로 보석도시 익산에 모인다.

익산시는 7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익산보석박물관·황금보석박물관 석담 교류전 '대한민국 명장의 Masterpiece'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개막식에는 전대식부시장, 남강우 석담박물관장, 명장 김용희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의 민간 사립박물관인 황금보석박물관 석담과의 첫 교류전시회로 국내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속에서 탄생한 명장 작품들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명장들이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며 양 기관은 보석산업을 알리고 귀금속·보석 관련 기술자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황금보석박물관 석담은 2021년에 삼덕귀금속 최광규 회장이 황금·보석·세공을 테마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9월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전은 상호협력의 첫걸음으로 황금보석박물관 석담의 소장품을 익산보석박물관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귀금속·보석 명장으로 선정된 총 17인의 작품 47점을 국내 최초로 한 자리에 선보인다. 시는 황금보석박물관 석담의 소장품인 15인의 작품 43점과 함께 손광수 명장 작품, 2022년에 명장 칭호를 받은 박영철 명장 작품까지 전시해 국내 명장 작품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 귀금속·보석 발전에 획을 긋는 유명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김용희 명장의 2005년 국제 귀금속 보



익산시는 7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익산보석박물관·황금보석박물관 석담 교류전 '대한민국 명장의 Masterpiece'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개막식에는 전대식부시장, 남강우 석담 박물관장, 명장 김용희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석 디자인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부가 전시된다. 주얼리를 착용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기능인 회동 장신구 제조 방법 및 그 구조로 발명 특허를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금은세공 분야의 명장이자 미스코리아 왕관 제작자로도 유명한 김종목 명장의 금관 작품은 대한민국 국보인 '신라 금관'을 한국산 자수정을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아름다운 한국 공예 100인'에 선정된 김찬 명장의 작품 'Snake Jewelry'는 비단뱀이 파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뱀의 비늘을 보석의 컷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전대식 익산시 부시장은 "우리나라 귀금속·보석 분야 대한민국 명장님들의 섬세한 기술

및 예술성을 선보이는 이번 교류전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보석도시 익산을 중심으로 귀금속, 보석 분야가 미술작품으로 가치를 더욱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석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전시기획계(063-853-4772)로 하면 된다.

한편,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판소리마당 '소리판' 완창무대 펼친다

국립민속국악원, 방수미 미산제 수궁가 완창 시작으로 8개월 여정 돌입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1일, 2023 판소리마당 '소리판'을 방수미(사진)의 미산제 수궁가 완창을 시작으로, 고수에는 전국고수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김태영이 호흡을 맞추는 등 8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판소리마당 '소리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5, 8월 제외)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원에서 펼쳐지며, 이번 완창무대는 지난 1월 심사를 거쳐 중견 명창부터 젊은 소리꾼 총 8명을 선정, 주인공들은 수궁가에 방수미, 춘향가에 정승희와 이성현, 흥보가에 박미선과 정상희, 심청가에 최진숙과 오민아, 적벽가에 김은석 등이 무대를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단 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로운 CI' 공개

변화된 비전·핵심 가치 반영... 전북도 문화관광 트렌드 선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CI 리뉴얼은 재단 운영 4기의 변화된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CI는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라북도인을 생각하는 전북(Jeonbuk), 재단의 핵심 가치인 창의, 변화, 협력이 교차하여 완성하는 예술(Art), 이를 연결하는 문화(Culture)와 관광(Tourism)을 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사람(人)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JACT(제이액트)로 표현해



역동성을 더했다. 국문 표기도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의 CI 리뉴얼에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를 반영한 것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CI에 담긴 뜻과 함께 앞으로 우리 재단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날은 춥지만 미술관에 가고 싶어'

전북도립미술관 공동 기획전시 12일~4월 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날은 춥지만 미술관에 가고 싶어' 기획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의 공동 주최 행사로, 도내 문화예술계 유관기관 간의 연대 및 상생 체계 마련과 도립미술관 소장품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전시를 기획했다.

이에 따르면 '날은 춥지만 미술관에 가고 싶어'는 도립미술관이 해마다 소장품을 엄선해 도내 시·군별 문화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기획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두

가 향유하는 미술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번 전시는 도립미술관 소장품 컬렉션 중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흐름 속 유의미한 작품군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추상 욕동(영포르멜) △생의 조건에서 생의 감각으로(민중미술) △자연을 사유하는 두 가지 방법(구상-비구상 계열 수묵화 운동) △모든 것은 불안으로부터(전북청년작가)라는 4가지 테마로, 다세대에 걸친 전북지역 작가 및 작품을 소개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관람객의 관심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노무, 경영 등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경영상태와 당면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5인 이상 기업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이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서, 기업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기업이 원하는 시간, 장소, 다

양한 운영방식으로 7개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jbcw.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전정희 센터장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진행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여성과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76-9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